

부서탐방①-복지사역본부

(...4면에 이어서) 또한 교회의 어르신과 지역 사회의 어르신을 초청하여 그분들을 위로하고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어르신 잔치도 하게 된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어머니 구역인 안나구역과 1,2,남여선교회를 협조하여 그분들이 저희 교회 어르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다. 그 외에 여러 지역의 독거 노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여 어렵게 사시는 그분들 곁에 항상 주님이 계심을 보여드릴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른들은 도움을 주는 자이고 믿음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의 역할과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누리는 활기를 교회 내외에 전하게 될 것이다. 흠어져 있는 모래알들은 껴끄러워 치워져야 하는 먼지에 지나지 않지만 모이면 집을 세우는 재료가 되고 더러운 물을 정화시키는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된다. 진정으로 귀중한 알의 밀알이 되는 하프타임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바란다.

꿈나무 사역팀

늘 어려운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으면서도 어떤 뚜렷한 기회가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터에 2005년 어느 날 담당목사님께서 전화



를 하셨다. 교회 안에 공활사역본부라는 부서를 만들고 그 안에 꿈나무 사역(소년소녀 가장, 결식 아동)과 구제부가 생기는데 꿈나무 사역을 맡아달라는 하셨다. 잘 할 수 있을까 싶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꿈나무 사역은 처음 생긴 부서여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많은 걱정이 되었으나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다. 어려운 이웃이나 소년소녀 가장은 의외로 많았고, 도움을 호소하는 사연도 많이 접하게 되었다. 어느 사연 하나 눈물없이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내용이었지만, 모두 다 도와줄 수는 없어서 마음이 아팠다. 일단 내용들을 보며 선별을 했고, 또 각 기관이나 학교를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했다. 그 선별 과정이 실제로 도움을 줄 때보다 더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일단 선별된 수혜자들의 가정을 일일이 찾아가 그 현실을 파악하는 일도 참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구제사역팀에서 하는 일은 첫째 매

달 생활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과 그들이 1:1결연을 맺어 구체적으로(전화나 식사, 선물, 등) 그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은 필수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어둡고 절망적인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다.

이제까지는 나와 내 가족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으나, 이 사역을 통하여 제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있게 되었다. 우리 모두에게 가정이 정말 소중하지만, 우리 주변의 소외된 작은 자들에게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 생각대로라면 우리 교우 한 가정 또는 한 구역마다 이들과 결연을 맺어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희망을 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때 우리의 지역 사회가 얼마나 밝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럴 때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게 아닐까?

어느 덧 3년간의 꿈나무 사역 팀장을 마치고 올해부터는 구제부 팀장으로 새로운 사역에 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꿈나무 사역은 구제부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소외된 가정에 도움을 주는 일에 구체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사랑,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한다.

바람~바람~바람~

허윤정

이주노동자 자녀돕기
자선바자회

“길가에장터”

일시: 2008. 4. 19 (토) 10am~5pm

장소: 길가에교회앞

•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물품기증 및 문의 031)552.2273, 011.7770.0500

나의 신앙 이야기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3월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고 꽃들도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마음껏 뽐내는 계절이다. 2년 전의 봄은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귀하고 소중한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2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2006년 3월 26일(주일), 그날도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는데 심장이 많이 뛰면서 머리로 깨질 듯이 아픈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었고 견딜 수가 없어 삼성의료원 응급실로 갔다(2개월 전부터 가끔 증상이 있었다).

혈압은 오르락내리락 춤을 추었고 응급실에 들어간 지 몇 시간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심근경색, 심부전증이 와서 심장 조형술도 해보았지만 혈관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갑자기 폐에 물이 찼고 심장은 20%밖에 기능을 못해 심장과 폐를 기계로 연결하여 인위적으로 숨을 쉬게 했다. 24시간 투석을 하였고 폐혈증과 황달도 왔으며 의식도 없었고 오장육부는 망가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인공으로 숨을 쉬는 그야말로 죽은 송장이었다. 인공으로 숨을 쉬는 심장만이 따듯하고 가볍게 박동하고 온 몸은 차디찬 시체와 같았다. 아내는 의사의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친구, 처가 식구들에게 연락하고 교회에도 연락을 했다.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에서 저를 위해 기도드렸고 구역 식구들도(가정사역 구역) 금식을 하

며 기도를 했다. 저를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고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셨다고 믿는다. 중환자실에 있는 지 10일이 되었을 때 병명이 나왔는데 갈색 세포종이라는 희한한 병명이 나왔다. 또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어 20% 밖에 뛰지 않았던 심장이 60%로 기능이 회복되었다. 의사 선생님은 심장이 어느 정도 돌아 왔으니 수술을 해서 종양을 떼어 내자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동맥 바로 옆에 8cm나 되는 종양이 있음으로 수술을 하다가 대동맥을 잘못 건드려 대동맥이 터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아내는 마지못해 승낙을 했고 수술은 진행되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수술은 잘 되었고 종양이 8cm라면 악성이라 했는데 감사하게도 양성이라고 판명되었다. 중환자실에서부터 수술 후 회복되기까지 아내와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죽음 직전에서 저를 살리셨다.

저의 망가진 오장 육부가 하루하루 회복되었지만 신장은 회복되지 않아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일반 병실로 가서는 일주일째 3번씩 투석을 했다. 절망에 잠겨있을 때 엘리자 선지자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있을 때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비가 왔다는 성경 말씀이 머리를 스쳐갔다. 아내와 저는 소변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고통을 겪지 않은 분들은 배설의 기쁨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느껴보지 못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셔서 처음에는 한 방울이 휴지에 묻어 나오더니 두 세 방울, 시간이 지날수록 소변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정상에 가까운 소변량이 나와 투석을 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제가 수술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지난날의 잘못된 삶과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죄까지도 낱알이 보여 주셨다. 운전을 하면서 양보 안한 것, 혈기 부리며 욕한 것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보여 주시고 저를 회개하도록 해주셨다. 앞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라고 저를 살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3번의 수술을 거치며 회복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몸을 정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고 식성까지도 바뀌어 놓으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남은 인생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이며 교우들에게 빛을 갚으며 열심히 살 것이다.

조선연 안수집사(3-9)

|오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5:13

통 권 제 226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8년 4월 6일

함즐함울

www.pcltv.org

2면 담임목사 주일설교

3면 부서탐방 _ 복지사업본부

4면 나의신앙이야기 _ 조선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12STEPS 성경공부

지난 수요일로 12단계성경공부가 만 4주 지났다. 여전히 뜨거운 성도들의 관심과 박원호 담임목사님의 열강으로 그 분위기는 식을 줄 모른다. 보슬비가 내려 운동장 주차가 불가능한 가운데도 참석성도는 1,500명에 이른다(토요 반 500명에 이른다). 행사 진행자(최상인 장로, 이동희집사)는 성도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봉사요원들이 5시 30분부터 준비를 시작해 10시에야 비로소 끝난다고 했다.

오늘 강의의 목사님은 싱글양복에 세련된 넥타이, 안경너머 예리한 눈빛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신선한

유머를 시작으로 “온전한” 신앙을 강의하면서 “덕이 몇점인지 매겨보라 했다.” “0은 최저이고 10은 최고”라며 “발표는 안 시키지겠다” 했다. 그리고 이어서 날카로운 한마디 “옆사람이 자꾸 보는 것 같아 못하겠습니까? 그럼 집에서 해보십시오” 모든 성도는 이것이 목사님의 질책이 아님을 잘 안다.

5층에서 열심히 강의에 몰두한 이지숙(6-22)집사님에게 성경공부 시작한 동기를 묻자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과 삶을 연관짓고 정립하고 싶었다” 며 삶과 믿음이 함께 변화되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담임목사님의 강의를 수강한 박호길 장로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주님의교회’는 새로운 생각과 패러다임으로 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출발점에 12단계 성경공부의 시작은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지혜가 진정한 영성의 첫 번째 기둥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시작이 반이다. 참석하는 모든 성도가 한걸음 한걸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나아가길 바란다 하태원 기자

로 템 나 무

하나님 마음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62:8)

집 안에 있는 화분 중에 자주 물을 주어야 하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은 한참을 물을 안 주어도 끄떡없이 잘 견디는데,

이것은 하루만 물을 안 주면 곧 죽을 것 같이 엄살이다.

약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약해서 더 안타깝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약하고 부족하기에
더욱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매순간 저를 붙들여 주시옵소서.

엄혜숙 기자



<기아대책>과 <주님의교회>가 함께하는 자선바자회
지구촌 굶주린 이웃에게 식량과 사랑을!

자세한 내용은 4월 6일자 주보간지 참조

일시: 2008. 4.26(토) 10시(오전)~4시(오후)

장소: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운동장

* 문의: 조성득 안수집사 016-332-9464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박국 3:17-19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결단이라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할 곳이에요. 우리가 변화시켜야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영광의 경험을 갖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포

오늘 본문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짧은 말씀은 훗날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전체의 주제가 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말씀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도 마찬가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은 훗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구교에서 갈라져 나올 때 가장 앞세우고 나왔던 “오직 믿음”이라는 역사적인 대 신앙 선포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왜곡된 현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앗수르나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느냐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해석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 함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장4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며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다” 군사적인 나약함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민족이 멸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도는 마비되었고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회가 죄악으로 관영할 때에 하나님의 법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 악인이 번창하느냐? 왜 의인이 고통받느냐?”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악인은 번창합니다. 선지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의를 공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사는 것이 의인의 길이요 형통한 길이라고 증거해야 할 텐데 주어진 현실은 정 반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침묵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을 아시면서도 침묵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의인들이 고통하는데 침묵하십니까? 악인들이 악을 자행하는데 침묵하십니까? 그러기에 우리 안에도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왜 의롭게 살 수는 없습니까? 왜 거짓되게 살아야 하고, 남을 해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아픔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자세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쉽게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다음 세상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자신의 소망을 내세에 두면 되는 것

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끼리 따로 모여서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식으로 살고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살면서 위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제로 고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은 으레겠 그렇다!” 포기하는 자세입니다. 본래 세상이 그런데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무엇이나?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잘 알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어라고 말합니까?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의인이 고통할 때 기억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본질이 무엇이며 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분 짓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소를 바라보고 양을 바라보고 감람 열매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포도 열매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를 깨달았고 그러기에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믿음대로 살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의 삶인 줄 알았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악인들이 번창하고 그리고 득세한다할 지라도 고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8년 그 분이 저격 당하기 전날 행한 연설에서 “자기는 어떤 박해나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한 변화산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격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경험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의 시작

세상의 고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구원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기쁨을 가져서 좋은데 세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버려두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구원은 무엇을 위한 기쁨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지 내가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에 그칩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가장 크게

넘어지는 하나의 걸림돌이 있다고 믿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에 집착하면서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참된 영광을 이룰 곳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은 나 혼자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가운데 죄와 벌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 라스콜리니코프가 전당포 노파를 죽이고 고통하다가 창녀였던 소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새로운 사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결코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할 곳이에요. 우리가 변화시켜야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영광의 경험을 갖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사명

왜 하박국 선지자가 사회의 고통 앞에서 구원을 찬송했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것은 다시금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키 위함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는 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곧 바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내려오시자 산 아래에서는 아버지의 간절한 절규가 들립니다. 아들이 귀신들려 광기를 부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합니다.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 아들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도 외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닙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졌는데 이 세상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광기를 부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며 상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얼마든지 머물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고통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참된 영광은 바로 산 아래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축복들은 고통하는 세상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담긴 축복입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부서탐방①

복지사역본부를 찾아서

함글함을 편집부에서는 이번호부터 주님의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있는 여러 부서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이번 호에는 복지사역본부를 찾아갑니다.

장애인 사역팀

장애인 사역팀은 교회내의 장애인 교우들과 외부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이원체제로 활동하고 있다. 교회출석 장애우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으며 사회의 외부장애인 시설을 지원하는 등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소리없이 봉사 하는 팀원들의 헌신으로 활동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주님 알기를 원하는 많은 장애우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청각장애우들과의 긴밀한 친교와 관심을 위해 양육과정의 한 과정으로 수화 교실(매주 금요일 오후)도 운영하고 있다. 각자 자기 역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팀원들과 장애인팀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호스피스 사역팀



주님의 교회 호스피스 사역팀은 중증 암환자이거나 다양한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12개 병원 및 5개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역팀은 현재 70여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일별로 흩어져서 환자들이 마음편하게 투병하고, 신앙심을 갖고 숨쉴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팀리더인 허명숙 권사는 사고로 인한 전신마비로 고통받던 25세 청년이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 보며 사역의 보람을 느꼈다고 특별한 에피소드를 전했다.

허 권사는 '올해에는 주님의 교회 내부의 환자들을 돌봐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며 환우 성도를 직접 찾아가는 '가정호스피스'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더 많이 찾아가서 보살피는 것이 올해 목

표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안식처, 호스피스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정동제일교회에서 1년에 두차례 개강하는 무지개 호스피스 강좌를 수강해야 한다.

전화상담팀

전화를 통해 익명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봉사하고 있는 곳, 바로 전화상담팀이다.

상담팀을 이끌고 있는 김연희 권사는 '생명의 전화'나 '사랑의 전화' 같은 세상 속의 다양한 전화상담매체에서 활동해온 10여명의 성도들을 주축으로 전화상담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김권사는 상담을 통해 스스로가 치유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으며 봉사는 보람을 전했다.

식량이 없어 며칠 굶거나 갈 곳이 없는 성도들이 종종 전화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적합한 사회단체로 연결해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이나 손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성도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공감을 표시해주는 일도 많다.

김권사는 "의외로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은 전화를 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며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아도 좋으면서 더 많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전화상담팀은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처입은 영혼들을 위해 전화를 기다린다.

상담을 원하는 성도들은 02-416-5183 으로 전화를 걸면 된다. 단 토요일은 예외로 오전 10시까지만 상담을 받는다. 직접 전화상담팀에서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은 소정의 훈련을 거쳐 상담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환경사역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조 질서에 따라 인간과 자연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나 우리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모든 생활환경 요소가 오염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우려할 만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 팀에게 주셨다. 환경사역팀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저희 팀에서 금년도에 할 일은 ① 교육활동: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기, 물, 먹거리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토론, 환경 세미나 개최, 환경칼럼 교회신문인 "함글함글"에 올리기 등이다. ② 봉사활동: 꽃 및 나무심기, 독방 및 학교주변 청소, 긴급 재해 발생시 현장지원 등이다.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때 현장조사팀으로 기름에 오염된 태안반도를 보고 온 교우들과 함께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다녀오고 나서 환경사역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환경사랑은 거창한 구호나 사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세제를 사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환경사랑의 시작이다. 저의 관심을 가정 회사 교회등 나 자신의 유익에 한정시켜 놓고 그곳에 머무르며 관리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적인 삶의 울타리를 떠나 우리의 문제인 환경 분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성장 또한 더 넓고 높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

아직 보람보다는 부담이 더 크지만 환경사역팀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본다.

하프타임 사역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체들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원한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세워져가며 몸 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하여 기도한다. 하프타임 사역팀에서는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맞아 더욱 새롭고 보람있는 활동으로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어른들이 감당하실 사역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가장 많은 경험의 양을 갖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살며 격랑의 세기를 살았던 50대 이후의 장년들은 이제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굳건히 하는 무엇보다도 단단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원이다. 우리 장년 이후의 어르신들은 1)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어떤 세대보다 안정된 판단력을 발휘한다. 2) 여러 분야와 다양한 경험은 탄탄한 내공으로 다져져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될 수 있다. 3) 젊은이들이 미처 손대지 못하는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돌봄에도 시간과 물질을 나눌 수 있습니다. 4) 우리가 젊었을 때에 하고 싶었으나 외면할 수 밖에 없었던 전혀 다른 문화권을 위한 선교사업을 돕거나 그 추억이 될 수도 있다. 5) 많은 아픔들을 겪어 왔으므로 동일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풍성한 위로를 줄 수 있다. 6) 이제까지는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지만 이제는 나와 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재충전을 준비해야 한다. 7)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지체들을 세우는 보이지 않는 도우미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프타임 사역팀에서는 앙코르 합창단을 조직하여아직은 미미하나 여러 선교 현장이나 불우한 시설들을 방문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4면에 이어서)

